

경기지역(京畿地域)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취락(聚落)의 전개과정

김준희 (충남대학교)

1. 머리말

취락(聚落)은 협의의 관점에서 인간이 세운 건조물이자 공동생활의 단위인 가옥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광의의 관점에서는 가옥뿐만 아니라 주거와 연관된 모든 유구(遺構)들, 즉 주거지 주변의 경작지나 분묘, 제의유적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구조로서(이형원 2009:3), 정주생활의 증거를 드러낸다(송만영 2007; 박경신 2019:271).

본 연구는 점유기간의 변화를 통해 취락(聚落)의 변동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락(聚落)의 구성요소 중 주거지는 취락(聚落) 내에서 당시 인간의 점유 당시의 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장소이다. 한반도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의 주거지는 지역별, 문화유형별, 그리고 시기별로 평면 형태와 크기, 내부시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주민집단의 점유 방식의 변화와도 연관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의 형식이나 세부적인 변화는 사회 조직이나 성격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나 생계경제의 변화로 인한 점유기간의 변화, 취락(聚落)의 변동 과정과도 결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주거지 연구는 생계 양상을 복원하는 목적보다 구조를 통해 유형을 설정하고, 시간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강 유역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유적의 발굴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¹⁾ 따라서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京畿地域)을 수계에 따라 임진-한탄강(臨津-漢灘江)유역의 경기(京畿) 북부, 한강(漢江) 본류의 경기(京畿) 중부, 황구지천(黃口池川), 오산천(烏山川) 일대의 경기(京畿) 남부 3개로 세분하여 주민집단의 점유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왜 발생했는지 생계경제적 측면에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2. 취락(聚落)의 점유와 폐기

취락(聚落)의 점유 방식은 인구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단일 점유, 폐기 후 재점유의 반복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토지 사용 전략, 생계경제의 변화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업 활동이 활발했을 것이며, 폐기 후 재점유가 반복되는 양상은 생계 전략을 다양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취락(聚落)의 폐기는 생계 전략 중 토지 사용 전략을 변경하기 위한 이동과정에서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동은 항상 취락(聚落) 붕괴의 결과가 아니며, 오히려 생계 전략의 일환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미 남서부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원주민들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반건조성(semi-arid) 환경에서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취락(聚落)을 계속 이동하면서 토지 사용을 재편했다. 이를 통해 원주민들에게는 이동이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인식이 오랜 기간 자리 잡았다(Nelson and Hegmon 2001). 이러한 전략적 다양성은

1) 2000년 이후 평택, 화성에서 약 700기가 넘는 주거지가 확인됐으며, 인천 검단지구의 경우 2003년~2020년까지 약 500기가 넘는 주거지가 확인됐다.

주거지 내부 시설이나 규모, 혹은 유물의 잔존 양상에서 잘 드러난다. 주거지 내부 시설과 크기는 주거지 축조와 관련된 요소로, 점유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취락(聚落)의 운영과 점유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변수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데, 이러한 변수를 극복하고 점유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거시설이 변화하는 것이다. 재점유 계획을 가지고 폐기했을 때 잔존물이 일상생활공간에서 발견된다. 이 경우 계절적 점유 혹은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많기 때문에 이동의 용이성 혹은 손실 방지를 위해 귀환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남겨두거나, 이동한 곳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기능적인 물품들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Stevenson 1982).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에는 다양한 물질문화가 이동, 분산, 결집을 반복하며 취락(聚落)을 재편했다. 인구 이동은 이전 시기 점유가 활발하지 않았던 지역뿐만 아니라 타 유형의 영역으로도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각 유형은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 및 문화 교류를 하며 이주지를 결정하고 취락(聚落)을 폐기, 결집, 분산, 확대했을 것이다(황재훈 2014:217). 이와 같은 취락(聚落)의 점유, 폐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편년 확립을 통한 동시성의 확보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김승옥 2000; 이회준 2000; 김장석 2007; 송만영 2011a:99; 박경신 2019:272). 유적과 주거지의 정밀한 편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락(聚落) 구조가 기존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김장석 2007), 동시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주거지의 사회경제적 관계나 취락(聚落) 내 사회조직 및 변천에 대한 의미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승옥 2000).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기지역(京畿地域)에서 장기간 점유된 취락(聚落)을 세부 편년하여 폐기 혹은 재점유 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점유기간과 주거지 배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편년안을 활용하여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를 크게 전기 전반, 전기 후반, 중기, 후기의 4시기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3. 주거지의 사용 수명(Use-life)과 점유기간의 변화

주거지의 사용 수명은 주거지 축조에 투자되는 시간과 노동력, 즉 축조 비용을 구조물의 예상 점유(사용) 기간으로 조건화하는 것이다(Diehl 1997). 주거지 축조 시 단기 점유를 예상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장기 점유를 예상할 경우 더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투자할 것이다. 주거지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지만, 그만큼 유지도가 높기 때문에 후에 재보수 흔적이 상대적으로 적다. 예상 점유기간은 생계 양상이나 이동성과 결부되어 있으며, 취락(聚落)의 입지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다.

주거지의 점유기간과 상관관계를 갖는 연구자들 간의 공통된 속성은 1) 주거지 바닥 면적, 2) 주거지 깊이, 3) 주혈(柱穴)의 밀도, 4) 기타 시설의 여부이다(Diehl 1997; Gallivan 2002). 축조자들이 장기간 점유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상당한 저장시설을 축조했으며, 반대로 예상 점유기간이 짧았을 경우 견고한 저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ent 1991). 또한 바닥에 점토다짐이 시설된 주거지는 원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 및 냉기 차단에 효과적이고(오규진·허의행 2006), 음식물이나 기타 물질이 내부 지면에 박히는 것을 방지해 유지관리에 용이하다. 주혈(柱穴)은 주거지 건축 비용의 지수로서, 장기 점유를 의도하는 경우 주거지 상부구조가 견고해지고 이를 지탱하는 기둥의 수가 증가한다.

이를 참고하여 주거시설 중 노지(爐趾), 주혈(柱穴), 저장공(貯藏孔), 벽구(壁溝)시설, 바닥 점토(粘土)다짐시설의 밀도를 주거지의 점유기간으로 환산했다. 이때 기본 주거 시설인 노지(爐趾)와 주혈(柱穴)과 보조 시설인 저장공(貯藏孔), 벽구(壁溝)시설, 바닥다짐, 이색점토(異

色粘土)다짐의 밀도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노지(爐趾)가 시설된 경우 주거지 내에서 식량 가공 및 조리, 난방, 습기 조절 등의 기본적인 생활 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주거지의 점유기간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된다(Smith 2003). 또한 주혈(柱穴)은 견고한 지붕시설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이 축조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노지(爐趾)와 주혈(柱穴)의 존재는 주거지 축조에 투입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시사한다. 보조 시설인 저장공(貯藏孔), 벽구(壁溝), 바닥다짐, 이색점토(異色粘土)다짐은 주거지의 지속 기간을 연장하고, 기능을 극대화하는 용도이다. 따라서 보조 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 의도한 점유기간이 길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매튜 콘테 2019:60-69) 이들을 분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경기(京畿) 북부와 중부는 전기 전반에서 중기가 되면 점유기간이 증가했다가 후기가 되면 감소한다. 이러한 변화가 취락(聚落) 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개별 취락(聚落)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기 전반에는 노지(爐趾), 주혈(柱穴)과 같은 기본 시설만 조성된다. 전기 후반이 되면 주거지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내부에 보조 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또한 주거지가 군집하고 배치에서 정형성이 나타나 전기 후반부터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취락(聚落)을 축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기간이 증가하는 중기 단계에는 모든 시설들이 조성되며 그 밀도가 증가해 주거 내구성이 강화된다. 또한 주거가 군집하고, 주거지 배치와 크기, 내부 시설의 형식에서 정형성이 나타나며, 주거지 간 중복 사례가 적다. 따라서 이 단계에는 취락(聚落)이 어느 정도 계획 축조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 점유가 본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후기가 되면 점유기간이 급감하고 주거지가 분산되며 배치의 정형성을 잃는다. 그 이 시기에는 기본 시설과 보조 시설이 모두 마련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주거지의 장축 방향과 배치에서도 정형성이 사라진다.

경기(京畿) 남부는 북부, 중부와 달리 점유기간이 급감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길게 점유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전기 전반에 점유된 취락(聚落)은 주거시설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주거지 배치에서는 정형성이 확인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장기적인 점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기 후반이 되면 주거지의 수와 기본 시설, 보조 시설의 밀도가 증가해 주거 내구성이 강화된다. 취락(聚落) 분포에서는 주거지가 군집하고, 배치에서 정형성이 나타나지만 주거지의 크기,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취락(聚落)의 계획 축조가 본격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가 되면 주거지의 수는 이전 시기와 유사하지만 점유기간은 더욱 증가한다. 기본 시설과 보조 시설의 밀도가 높아 주거 내구성이 더욱 강화되며 주거지의 크기와 형태, 배치에서 정형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중기에는 장기 점유를 위해 취락(聚落)을 계획적으로 축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후기에는 주거 내구성이 감소하지만 기본 시설의 밀도가 높으며, 보조 시설 중 저장공(貯藏孔)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밀도가 높아 점유기간이 북부, 중부보다 상대적으로 길다. 취락(聚落)의 분포를 살펴보면 분산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형·방형 주거지가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후기에도 취락(聚落)을 계획적으로 축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 단계에 공통적으로 점유기간이 증가하는 양상은 농경(農耕) 중심의 생계경제 전환과 연관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가 되면 농경 활동이 생계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시기에는 주 생계활동이 수렵(狩獵), 채집(採集), 어로(漁撈) 등 혼합경제에서 농경(農耕) 중심으로 변화한다. 농경(農耕)이 발달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농지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됐을 것이며, 이로 인해 주민 집단의 정주성(定住性)이 높아졌을 것이다. 실제 미국(美國) 체서피

크(Chesapeake) 지역의 사례를 보면 농업의 흔적이 확인된 취락(聚落)은 이전 시기보다 정주성(定住性)이 증가했다(Gallivan 2002).

이와 마찬가지로 경기지역(京畿地域)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주민집단도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농경지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점차 점유기간을 점차 늘려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점유는 주거 시설의 내구성을 강화시켰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시설 외에 오랜 기간 점유를 위한 방온, 방습을 위한 보조 시설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장기 점유를 예상할 경우 모든 환경조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외부나 원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을 수 있는 시설과 입지의 특성으로 인한 높은 습도를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맺음말

주거지는 주민 집단이 의도를 가지고 축조한 유구(遺構)로서, 축조 당시 예상 점유기간과 점유 시의 사용 흔적, 방치 이후 재사용 흔적 등 과거 이용 양상을 제공한다. 또한 주거지에 대한 논의를 취락(聚落)의 전반적인 변화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취락고고학(聚落考古學)뿐만 아니라 생계경제의 변화 및 사회 복잡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생계 전략의 다양화에 따른 점유기간의 변화, 주민 집단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연구 범위로 확대한다면 당시 주민집단의 생활상과 사회에 대한 원활한 접근과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승옥, 2000, 「호남지역의 철기문화: 호남지역 마한 주거지의 편년」, 『호남고고학보』 11.
- 김장석, 2007,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복합화과정 연구에 대한 검토」, 『호서고고학』 17.
- 매튜 콘테, 2019, 『한반도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의 확산과 이동성의 변화-취락 점유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신, 2019, 『원삼국시대 중도유형 취락의 편년과 전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만영, 2007, 「남한지방 청동기시대 취락 구조의 변화와 계층화」, 『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학술총서 3, 25-59, 사회평론.
- _____, 2011, 『한반도 중부지역 취락의 발전과 정치체의 성장-청동기시대~한성백제기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형원, 2009, 『한국 청동기시대의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준, 2000, 「삼한 소국 형성 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 『한국고고학보』 43.
- Diehl, M. W., 1997, Changes in architecture and land use strategies in the American Southeast: Upland Mogollon pithouse dwellers, A.C.200-1000. *Journal of Field Archaeology* 24(2): 179-194.
- Kent, S.,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mobility strategies and site structure, in Ellen Kroll and T. Douglas Price, eds., *The interpretation of Archaeological spatial patterning*. New York: Plenum Press, 33-89.
- Nelson, M. C., Hegmon, M., 2001, Abandonment is not as it seems: An approach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ite and regional abandonment. *American Antiquity* 66(2):213-235.
- Smith, C. S., 2003, Hunter-gatherer mobility, storage, and houses in a marginal environment: an example from the mid-Holocene of Wyoming,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2:162-189.
- Stevenson, M. G., 1982, Toward an understanding of site abandonment behavior: evidence from historic mining camps in the Southwest Yukon.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1:237-265.